「성경과 신학」 제55권 (2010): 165－93.

기독교 교육과 구원:
구원의 유인책으로서의 예수 영화*
Jesus Film as a Motif for Salvation

박종석 (서울신학대학교/기독교 교육)

이 논문은 기독교 교육을 구원으로의 인도자로 보고, 그 수단으로서의 영화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한다. 기독교 교육에서 구원 과정의 성격은 전인적인 것이고 생애적인 것이다. 구원을 이렇게 볼 때 학습자의 발달을 고려하여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화인 예수 영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구원에로의 좋은 안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예수 영화의 내용, 영화가 사용될 교회의 교육현장, 그리고 관람자인 학습자의 발달이라는 구조 안에서 예수 영화 활용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들은 타당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 작금의 영화를 이용한 교육에 대한 반성을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 구원, 전인, 예수 영화, 영화 비평, 교육의 구조

---

* 논문 접수일: 2010. 5. 28. 수정 접수일: 2010. 7. 2. 게재 확정일: 2010. 9. 11.

1. 들어가는 글

인간 성장을 최우선시하는 교육적 차원에서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 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 구원일 것이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것이기에 기독교 교육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교육은 인간 구원에 대해 망연자실한 채 무력하게 서 있어야 하는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기독교 교육은 구원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어도 구원의 보조자는 될 수 있다. 기독교 교육은 가르침을 통해 적어도 학습자를 구원의 문턱으로까지 인도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

기독교 교육이 구원의 입구로 안내하는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화와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할 때 영화만큼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영화는 오늘날 대중 다수의 관심을 끄는 매체가 되었다. 천만 명이상의 관객을 점유한 영화가 출현하는 것을 보면 그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영화라는 매체가 가진 위력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육의 이론과 현장에서 영화의 사용과 그에 대한 논의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1] 학습자의 구원을 위한 도우미 역할이야말로 기독교 교육의 최우선과제이며 이 목적을 위해 학습자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영화가 도움이 된다는 전제 아래 기독교 교육에서 영화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예수 영화의 기독교 교육적 사용에 대한 탐구가 될 것이다. 구태여 예수 영화인 까닭은 예수야말로 바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예수 영화가 학습자를 구원으로 이끌기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것들을 교회교육 현장의 어디에서 어떻게 그리고 발달에 맞추어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탐구가 이 글의 내용이 될 것이다.

---

1 이 글에서 영화는 기독교 교육을 전제로 한다. 구태여 그것을 부른다면 '기독교 교육적 영화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용어는 교육적 관점이 빠진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영화교육인 '기독교 영화교육'과 다르다. 더구나 영화에 관해 교육하는 '영화교육'이나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영화'와는 크게 다르다.

2. 전인적 구원과 영화

2.1. 하나님 은혜의 수용과 인간 자유의지 사이의 구원

신학적 논의에 따르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듯하다. 크리스 T. 바운즈(Chris T. Bounds)는 그 양태를 명쾌하게 설명한다.[2] 바운즈는 구원에 관한 네 가지 역사적 관점들을 말하는데, 그것들은 펠라기우스주의(Pelagianism)와 어거스틴주의(Augustinianism)를 잇는 대각선에 반(半)펠라기우스주의(Semi-Pelagianism)와 반(半)어거스틴주의(Semi-Augustinianism)가 위치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 입장들은 원죄에 의한 인간성의 상실 정도,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인간의 의지인지 또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인지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펠라기우스주의의 경우, 인간에게는 원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인간이 자유의지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된다.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원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선을 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옳은 일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반어거스틴주의는 원죄가 있는 인간은 구원을 위해 무력하다. 다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선행적 은총을 통해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다. 어거스틴주의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믿음과 회개는 구원받을 자에게만 허락된다.

하나님의 값 없이 주시는 은혜와 인간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 사이에서 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신학적 언설들은 모호하며 무책임하며 무력하다. 신학이 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자유의지 사이의 신비의 공간이 기독교 교육의 장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을 향하고 자유의지가 어떠하든 그것을 소유한 존재는 인간이다. 은

---

2 Chris T. Bounds,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웨슬리-성결전통의 시각에서 본 구원", 「성결교회와 신학」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2009-가을): 18-39.

혜와 자유의지는 인간이란 최소공배수를 갖는다. 인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 교육은 구원을 이룰 수 없으나 그가 가진 인간 전인에 대한 이해와 자원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

2.2. 전인으로서의 구원

일찍이 조오지 A. 코오(George Albert Coe)는 교육에 의한 구원을 외쳤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인격적 변화이며 사회의 종교적 민주주의("하나님의 민주주의", Democracy of God)의 진보를 말하는 것이고,[3] 그것을 위해 기독교 교육이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에서의 인간 영혼의 구원과는 다르다. 코오 주장의 급진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원과 기독교 교육의 관계성에 대한 언급은 기독교 교육이 구원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구원과 관련된 대표적 연구 주제 중의 하나는 회심일 것이다. 회심에 대한 연구는 성서적 신학적 접근부터[4] 심리적, 사회적 접근,[5] 그리고 이 둘을 종합하는 방법론에[6]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탐구되고 있다. 이 같은 연구들을 통해 나온 결과 내용들은 대부분 회심의 동기와 상태 등에 관한 것으로(about) 회심을 위해 교육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for) 대한 제안과 처방은 신앙공동체에서의 사회적 환경 조성 정도에 그치고 있다.[7]

---

3 민주주의는 단순한 제도로서만이 아니라, 정신에 있어서도 그러해야 온전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코오는 그것을 예수의 가르침에서 본다. 예수는 인간에 대한 형제애와 인간사회의 이상적 민주적 조직을 결합시키고자 하였다. '하나님의 민주주의'가 행해지는 그 사회는 공정한 정부, 빈곤 없는 경제 질서의 확립, 하나님의 민주주의를 향한 젊은이들의 삶의 헌신과 자기실현, 사회복지와 환경보호, 노동과 교육과 놀이에 있어서 사회정의, 형제애 구현을 근거로 하는 세계공동체를 실현하는 사회이다. George A. Coe, *A Social Theory of Religious Educ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21), 54-55. 그리고 코오의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는 R. H. Pittman, *The Meaning of Salvation in the Thought of George A. Coe, William Clayton Bower and George Herman Bet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46) 참조. 교육과 구원에 관한 전반적 역사적 논의는 Stanley D. Ivie, "Salvation and Education: A Historical View," *Texas Tech Journal of Education* 12/3 (1985): 151-57 참고.

4 H. Newton Malony and Samuel Southard, *Handbook of Religious Conversion* (Birmingham, AL: Religious Education Press, 1992), Part II.

5 Malony and Southard, *Handbook of Religious Conversion*, Part III.

6 James E. Loder, *The Transforming Moment: Understanding Convictional Experiences*, 이기춘, 김성민 공역, 『삶이 변형되는 순간: 확신 체험에 관한 이해』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한편 기독교 교육에서 구원은 신앙성장이나 발달이란 주제와 연관되어 논의되고 있다. 신학적으로 신앙은 회심과 중생을 시작으로 성결을 지나 영화에 이르는 과정을 거친다. 성결(또는 성화)의 과정이 과정적이냐는 교파나 학자에 따라 다르다. 존 웨슬리(John Wesley)와 감리교, 성결교는 전자를 주장하고 존 칼빈(John Calvin)이나 장로교는 후자를 주장한다. 실존적으로 구원의 의미로 사용되는 신앙적 삶은 인간 삶의 양태를 미적 단계－윤리적 단계－종교적 단계로 나누는 유신론적 실존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Søren Kierkegaard)와[8] 유사하게 기독교 교육학자 루이스 J. 쉐릴(Lewis J. Sherrill)에게는 디딤 수레 같은 삶－영웅 무용담과 같은 삶에 이어지는 순례자와 같은 삶이다.[9] 이런 차원에서 구원은 회심이나 중생과 같은 순간적인 것이라기보다 평생에 걸쳐 이루어가는 장기적인 것이다.

신앙을 인간발달의 차원에서 보는 연구들은 강조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로날드 골드만(Ronald Goldman)의 경우에는 신앙의 인지적 영역을 드러내며,[10] 제임스 W. 파울러(James W. Fowler)는 장 피아제(Jean Piaget),[11] 로렌스 콜버그,[12] 로버트 L. 셀만(Robert L. Selman)[13] 등의 발달 이론을 종합하여 신앙의 단계들을 제시한다.[14] 파울러가 말하는 신앙은 개인의

---

7 Malony and Southard, *Handbook of Religious Conversion*, Part IV.

8 Søren Kierkegaard, *Enten-eller*, 임춘갑 역, 『이것이냐/ 저것이냐』, 제1부－제2부 (서울: 다산글방, 2008).

9 Lewis Joseph Sherrill, *The Gift of Power*, 김재은・장기옥 공역, 『만남의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10 Ronald Goldman, *Religious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London: Routledge and K. Paul, 1964).

11 Jean Piaget, *La Psychologie de L'enfant*, 성옥련 역, 『아동 심리학』 (서울: 탐구당, 1996).

12 Lawrence Kohlberg,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김민남・진미숙 공역, 『도덕발달의 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2001); Lawrence Kohlberg, Charles Levine, and Alexandra Hewer, *Moral Stage: A Current Formulation and a Response to Critics*, 문용린 역,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대우학술총서 470 (서울: 아카넷, 2000).

13 Robert L. Selman,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es* (London: New York: Academic Press, 1980).

14 James W. Fowler,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사미자 역, 『신앙의 발달단계』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195-338. 신앙의 단계들에 대한 파울러 자신의 요약은 James W. Fowler, ed. with Karl E. Nipkow, Friedrich Schweitzer, *Stages of Faith and Religious Development* (NewYork: Crossroad, 1991), 24-25 참조.

삶에 의미를 주는 전 자아의 역동적 성향, 전존재의 조건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미지, 개인의 가치 중심에 대한 신뢰와 충성, 관계적이며 공동체 안에서 형성, 유지됨, 상상력, 가치부여 또는 감정을 동반한 인식의 방식,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변하는 사건 내지는 환경과의 관계에서의 형성과 변형 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15] 이는 신앙의 전인적 성격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프리츠 K. 오저(Fritz K. Oser)의 경우, 골드만과 파울러의 연구를 종합하여 종교적 판단의 단계들을 제시한다.[16]

기독교 교육적 차원에서 보아도 구원의 기독교 교육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은 전인적 총체이다. 존 H. 웨스터호프(John H. Westerhoff III), 토마스 H. 그룸(Thomas H. Groome), 그리고 리처드 R. 오스머(Richard R. Osmer) 등이 그와 같은 내용들을 주장한다. 웨스터호프는 신앙이 경험적 신앙(experienced faith), 귀속적 신앙(affiliated faith), 탐구적 신앙(searching faith), 그리고 소유적 신앙(owned faith)의 네 가지 양식으로 발전한다고 본다.[17] 특히 지적 성격이 강한 탐구적 신앙을 지나 나타나는 소유적 신앙은 지・정・의, 즉 인간 전체의 변화를 말한다. 웨스터호프에게 신앙은 나무처럼 전체적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그룸에 따르면, 신앙의 차원은 세 가지이다.[18] 첫째, 지적인 차원이다. 이것은 지적으로 믿는 것으로서의 신앙이다. 둘째, 정적인 차원이다. 이것은 정서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서의 신앙이다. 셋째, 행위적 차원이다. 행함이라는 것은 아가페의 삶을 체현하는 것, 즉 자기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생동감 있는 기독교신앙은 이상의 세 가지 차원들, 즉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오스머는

---

15 Craig R. Dykstra and Sharon Parks, *Faith Development and Fowler* (Birmingham, AL: Religious Education Press, 1986), 25-26.

16 Fritz K. Oser and Paul Gmünder, *Religious Judgment: A Developmental Perspective* (Birmingham, AL: Religious Education Press, 1991).

17 John H. Westerhoff III,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정웅섭 역, 『교회의 신앙교육』 (서울: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83), 89-90.

18 Thomas H. Groome,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haring Our Story and Vision*, 이기문 역, 『기독교적 종교교육』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0), 103-106.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 주신 하나님 안에서 맺는 신뢰의 관계"라고 말한다. 그는 신앙의 측면을 신념(belief), 관계(relationship), 헌신(commitment), 그리고 신비(mystery)로 보고 있다. 신념은 신앙의 대상에 대한 지식으로서 신앙 정체성 형성에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상에 대한 신뢰 관계의 중요성과 신앙인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요청되는 헌신,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오는 신비의 측면을 신앙의 범위 속에 넣어 신앙을 통전적으로 보고 있다. 그에게 신앙은 입방체와 같은 것이다.[19]

기독교 교육에서 구원은 본질상 전인적인 것이다. 구원은 신앙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 신앙이나 구원의 상태 둘 다는 전인적이다. 기독교 교육은 구원을 위한 촉매 환경과 과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기독교 교육의 과제 중에 하나가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임무와 유사하다면 성령이 아니더라도 물로 세례를 행하는 구체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같은 방안 중의 하나는 영상 매체의 이용일 것이다. 하지만 영화는 대중문화와 불가분한 것은 아닌가. 영화라는 매체는 신학이 담고 있는 형식들과는 무관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어난다. 그럼에도 영화를 말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2.3. 기독교 교육 방법으로서의 영화의 효과성

'영상'(映像, image)은 빛의 굴절이나 반사에 의하여 물체가 영사막이나 브라운관, 모니터 따위에 비추어진 상을 말한다. 영상매체는 이와 같은 상을 만들어 내는 기제로서 TV나 영화가 대표적이다. 이 글에서 우리의 관심은 영화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화'라는 말도 영어를 이용할 경우 그 의미가 다양해진다. 영화에 대한 영어 용어에는 '무비'(movie), '필름'(film), '시네마'(cinema) 등이 있다. 제임스 모나코(James Monaco)는 프랑스 영화이론가들을 따라 이들에 대해 차례대로 '영화의 경제학', '영

---

19 Richard R. Osmer, *Teaching for Faith: A Guide for Teachers of Adult Classes*, 사미자 역, 『신앙교육을 위한 교수방법: 성인교육 교사를 위한 안내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24.

화의 정치학', '영화의 미학'이라고 불렀다.[20]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무비는 상업성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이며, 필름은 세계와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영화이고, 시네마는 하나의 예술로서의 영화를 말한다. 특히 예술로서의 영화는 뉴 저먼 시네마, 독일 표현주의, 시네마 노보,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영국 뉴 웨이브, 영국 프리 시네마, 제3 영화, 프랑스 뉴 웨이브 등 다양하게 출현했지만 크게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고자 하는 사실주의와 사물에 대한 작가의 주관적 생각을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주의로 나뉜다.[21] 영화 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비평은 주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22]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 기호학, 모더니즘, 작가 이론, 정신 분석학, 페미니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주요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23]

기독교 교육에서 왜 영화인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영화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살펴보자. 로버트 K. 존스톤(Robert K. Johnston)에 따르면, 영화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그것들은 회피(avoidance), 경계(caution), 대화(dialogue), 수용(appropriation), 그리고 신적인 만남(divine encounter) 등이다. 이 같은 다양한 입장들은 크게 영화에서 시작하는지, 아니면 신학으로부터 시작하는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24] 영화 자체에서 볼 경우 심미적인 것을 중시하게 되며, 신학적 입장에서 반응할 경우 윤리적인 것이 이슈가 된다. 회피의 입장은 영화 자체를 악으로 보는 입장으로부터[25] 영화의 비도덕성과 성경 내용의

---

20 James Monaco, *How to Read a Film: The Art, Technology, Language, History, and Theory of Film and Media*, Revised edition, 양윤모 역, 『영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혜서원, 1993), 193.

21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Monaco, *How to Read a Film*, 197-297; Louis Giannetti, *Understanding Movies*, 김진해 역, 『영화의 이해: 이론과 실제』 (서울: 현암사, 1999), 12-20 (박만준, 진기행 공역, 서울: K-books, 2009 10판도 참조).

22 이에 대해서는 류상욱, 『호모 시네마쿠스: 류상욱의 영화 이야기』 아웃사이더 예술론 2 (서울: 아웃사이더, 2003); 이윤영, "영화비평과 영상미학: 영화비평의 문제를 중심으로", 「인문총론」 58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7): 205-27 참조.

23 Susan Hayward, *Key Concepts in Cinema Studies*, 이영기 역, 『영화 사전: 이론과 비평』 한나래 시네마 시리즈 (서울: 한나래, 1997) 참조.

24 Robert K. Johnston, *Reel Spirituality: Theology and Film in Dialogue*, 전의우 역, 『영화와 영성』 (서울: IVP, 2003), 53-88.

왜곡에 대한 반대를 포함한다. 경계의 입장은 오늘날 대부분의 보수적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일 터인데, 이들은 영화를 볼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이나 기독교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내용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입장이다.[26] 대화의 입장은 종교적 주제나 요소를 담고 있는 영화, 특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리스도적 인물(Christ-figures)을 담은 영화[27] 등을 영화 그 자체로 보는 입장이다. 수용의 입장은 영화가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그것은 기독교적 이해를 확장시킨다는 입장이다.[28] 신적인 만남의 입장은 은혜가 모든 곳에 있다는 가톨릭적 성격이 강하다.

기독교 교육적 입장에서 볼 때 이 글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미 영화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가 이 글의 목적이기 때문에 회피나 경계는 아니고, 대화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신적인 만남의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입장이다. 회피나 경계의 입장은 근본주의적 보수주의자의 입장이 아니라면 그 본래적 의미에서 볼 때, 청년들의 영화 보기 접근 방식으로 유용할 수 있다. 기독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함유하고 있는 영화를 보면서 비평을 할 경우 기독교적 가치관을 분명히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 교육에서 영화 사용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영화에 대한 입장이 어떻든 영화는 신학적 사고와 성찰에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다. 영화는 매체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텍스트이다. 매체와 텍스트는 함께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정보는 관객에 의해 해석된다. 관객의

---

25 예를 들어, Herbert Miles, *Movies and Morals* (Grand Rapids: Zondervan, 1947).

26 예를 들어, Lloyd Billingsley, *Seductive Image: A Christian Critique of the World of Film* (Westchester, IL: Crossway, 1989).

27 데드맨 워킹(Dead Man Walking, 1995), 폴 뉴먼((Paul L. Newman)의 탈옥(Cool Hand Luke, 1967), 잔다르크의 수난(La Passion De Jeanne D'Are[The Passion Of Joan Of Arc]),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One Flew Over The Cuckoo's Nest, 1975) 등.

28 예를 들어, Neil P. Hurley, *Theology through Film* (New York: Harper & Row, 1970); David J. Graham, "신학에서 영화 사용하기", in Clive Marsh and Gaye Ortiz, ed., *Explorations in Theology and Film: Movies and Meaning*, 김도훈 역, 『영화관에서 만나는 기독교 영성: 영화와 신학의 진지한 대화를 향하여』 (파주: 살림, 2007), 77-94.

전제적 선험이나 편견이 기독교적일 경우, 영화라는 텍스트는 언제고 신학적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화는 단순히 현실을 재현하거나 내용만 전달하지 않는다. 영화는 재현과 정보 전달을 넘어 관객을 경험 속으로 몰아넣는다. 영화는 관객의 주의를 흡수하여 몰입하게 한다. 영화를 통한 경험이 어떤 성격의 것이든 관객은 영화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더구나 그 경험이 세속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초월적인 성격을 지닐 때 영화는 충분히 신학적일 수 있다. 이 말은 영화 안에 신적인 것이 있다는 범신론적 입장이 아니라 영화가 관객 안에 신적 경험을 유발할 수 있고, 영화가 계기가 되어 종교적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영화가 신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것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관객이 영화 안에서 신적인 것을 찾기도 하지만 영화가 관객 안의 신적인 것을 발견하게도 한다.[29]

영화는 변화를 동반한다. 영화는 그 서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감각을 자극해 정서를 이끌어낸다. 영화의 서사는 의식의 저항을 피해 관객의 마음과 영혼에 직접 말한다. 영화는 이야기와 은유 외에 감각을 자극하는 다양한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의도의 습득과 기억의 증가에 기여한다. 영화의 이와 같은 변화 기제는 인간 전인과 관계되기 때문이다.[30] 캐시 G. 스터드번트(Cathie G. Sturdevant)는 영화의 요소들이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의 다중지능과 밀접하다고 본다. 영화의 플롯은 논리지능, 각본의 대사는 언어지능, 화면의 영상, 색, 상징은 시각적 공간지능, 음향과 음악은 음악지능, 이야기 전개는 대인관계지능, 움직임은 운동감각지능, 특히 영감적인 영화에서 나타나는 자기반영이나 심리적 안내는 심리내적 지능을 수반한다.[31] 즉 영화의 전인성을 알려준다.

---

29 Graham, "신학에서 영화 사용하기", Marsh and Ortiz, *Explorations in Theology and Film*, 77-94.

30 Birgit Wolz, *E-Motion Picture Magic: A Movie Lover's Guide to Healing and Transformation*, 심영섭・김준형・김은하 공역, 『시네마테라피』 (서울: 을유문화사, 2006), 38-54.

31 Cathie G. Sturdevant, *The Laugh & Cry Movie Guide: Using Movies to Help Yourself through Life's Changes* (Larkspur, CA: Lightspheres, 1998), 27-32.

그러나 기독교 교육에서 영화사용의 필요성은 이상의 원론적 입장과는 성격이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오늘날 신세대들은 누구보다도 미디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따라서 이 세대에게 도달하는 최선의 길 중의 하나는 영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오늘날 영화만큼 다수의 학습자와 접촉하는 매체가 없으며, 학습자의 흥미를 끄는 매체가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 교육의 학습자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면 흥미(interest)를 끌 수 있어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존 듀이(John Dewey)에 따르면, 흥미는 사람을 전심으로 몰두하게 하는 활동으로서,[32] 교육적 목적을 이루는 훌륭한 도구와 동기가 될 수 있다.[33]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흥미를 관심이라는 말로 대체하는데, 그에 따르면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관심에 의존한다.' 즉 인식은 관심에 의해 구성된다.[34] 이 같은 듀이와 하버마스의 언급에 따르면, 흥미와 관심은 교육의 목적을 향한 추진과 변화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영화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교육의 목적 달성과 인간 변화를 위한 실마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토마스 M. 마틴(Thomas M. Martin)에 따르면 영화는 "관객에게서 경외감과 경이감을 일깨울 능력이 있다."[35] 구원은 놀라운 사건이며 놀라움에 의해 이루어지며

---

32 듀이는 신체와 정신, 인간과 자연, 개인과 사회 등의 범주를 토대로 흥미를 네 가지로 말한다. 그것들은 의사소통(담화)의 흥미, 사물발견(탐구)의 흥미, 사물제작(구성)의 흥미, 예술적 표현의 흥미이다. John Dewey, *The School and Society*, 이인기 역, 『학교와 사회』 (서울: 박영사, 1975), 30.

33 John Dewey, *Interest and Effort in Education*, 류명걸 역, 『흥미와 노력』 (서울: 용성, 2003), 65. 흥미는 '사이에 존재하는 것'(inter-esse)이며(Henning Ottmann, "Cognitive Interests and Self-Reflection," John B. Thompson and David Held, eds., *Habermas: Critical Debates* [Cambridge: MIT Press, 1982], 82), '거리가 있는 두 개의 사물을 연결하는 것'이다(John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이홍우 역, 『민주주의와 교육』 개정증보판 [서울: 교육과학사, 2007], 127). 듀이는 연결하는 사물의 '거리'를 시간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이 시간적인 거리는 성장의 과정에서 시작으로부터 완성 단계까지를 잇는 중간 조건 또는 수단이다.

34 Jürgen Habermas, *Erkenntnis und Interesse*, 강영계 역, 『인식과 관심』 고려원문화총서7 (서울: 고려원, 1983/1996), 314. 하버마스는 관심의 유형을 기술적 관심, 실천적 관심, 그리고 해방적 관심으로 말하는 데, 기술적 관심과 실천적 관심은 오직 해방적 관심과의 연관 속에서 비로소 인식 구성적 관심으로서 자기주장이 가능하다(Richard J. Bernstein, *The Restructuring of Social and Political Theory*, 안병영 역, 『현대정치사회이론: 방법론, 철학 그리고 비판』, 나남신서70 [서울: 나남, 1990], 198).

놀라움을 일으키기에 영화만 한 매체가 없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기독교 교육 현장에서 영화사용에 대한 논의나[36] 활용은 드물며,[37] 바르지 못한[38] 것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교육에서 영화는 예배 안에서 사용되거나,[39] 성경공부 시간에 이용되거나[40] 경건의 시간에 활용되었다.[41] 파멜라 M. 렉(Pamela M. Legg) 정도가 영화에 대해 대화적 입장에서 교육을 말하고 있는 정도이다.[42]

영화의 성격, 즉 투명성과 현실성의 두 성격은 교육의 의도와 맞아 떨어진다. 투명성은 영화 내용의 사실성을 말한다. 현실성은 영화의 의도성을 말한다. 교육은 학습자에게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영화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영화의 해석을 통해 교육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육에서는 어떤 영화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가 부족했으며, 있더라도 그 양과 질과 내용에서 만족할 만하지 못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에서 영화를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영화는 많고 기독교 교육이 그것들을 모두 상대하기에는 벅차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인간 구원을 위해 영화를 어떻게 사용할

---

35 Thomas M. Martin, *Images and the Imageless: A Study in Religious Consciousness and Film* (Lewisburg: Bucknell University Press, 1981), 52.

36 Pamela M. Legg, "Contemporary Films and Religious Exploration: An Opportunity for Religious Education. Part II: How to Engage in Conversation with Film," *Religious Education* 92:1(Winter 1997), 131; 김태원, "영화와 기독교 교육", 「기독교사상」 523 (2002・7): 207-22 정도이며 더구나 그 논의는 표피적이다.

37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TBC(Total Bible Curriculum)의 경우, 교육내용을 입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비디오 104개를 이용하는데, 그 내용은 성서지도, 성화, 고고학 자료, 현장의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38 예를 들어, 성경 애니메이션인 "슈퍼북"은 주인공 크리스와 조이가 시공간을 초월해 성경의 사건에 개입하는 구성을 취한다. 이 같은 구성은 성경의 세계로 안내하는 장점은 있으나 이미 성경 이야기를 해석하고 있어, 역으로 시청하는 학습자의 참여를 배제한다.

39 하정완, 『영화의 바다로: 하정완 목사의 영화 설교』, 예찬믿음 289 (서울: 예찬사, 2004); 김순환, "예배 안에서 영화사용의 의미와 한계", 「신학과 실천」 15 (2008 여름): 39-71.

40 박은주, "천국의 아이들: 영화와 함께 하는 말씀과 성경공부", 「교육교회」 311 (2003・3): 135-37.

41 하정완, 『영화로 큐티한다』 (서울: 예찬사, 2006).

42 Legg, "Contemporary Films and Religious Exploration," 126-31.

수 있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질 때 이 글의 내용은 구원과 영화가 만나는 보다 구체적이고 좁은 지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곳은 기독교영화 중에서도 예수 영화가 될 것이다.

예수 영화는 대체로 예수 주인공에게 집중한다. 비르기트 볼츠(Birgit Wolz)에 의하면, 영화의 등장인물은 관객에게 영향을 미친다. 등장인물을 통한 영향은 주로 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투사는 "어떤 정신적 대상을 공간적으로 분별력 있게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행위, 또는 그렇게 인식되는 어떤 것"이나 "자신의 사고, 감정, 태도를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돌리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에 의하면 투사는 금지된 생각과 충돌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인데, 관객은 영화의 인물들에게 자신의 '그림자'(shadow)[43]를 투사하면서 억압된 자아를 인식하고 수용함으로써 정서적 치유와 내면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면서 더 심미적, 전인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44] 이 글의 유용성 면에서 보면 다행히 기독교 교육에서 영화의 이 같은 영역에 대한 본격적 탐구가 흔하지 않으니 영화와 교육이란 주제에 대한 앞으로의 탐구에 대한 기여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예수 영화에 대한 전반적 소개를 하고 그것들의 교육적 사용을 발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3. 예수 영화 보기와 읽기

3.1. 예수 영화 보기

예수 영화는 멀게는 일반영화의 발전사 가운데 있으며 가깝게는 기독교영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독교영화는 기독교를 표방하는 제작자들

---

43 그림자는 칼 G. 융(Carl G. Jung)의 개념으로 '무의식의 콤플렉스'로 인간의 부정적 측면을 가리킨다. 인간의 동물적인 사악한 면, 부도덕성과 공격성, 잔인성 등의 원형이다. 이 '그림자'의 인식은 인간의 자기실현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부영, 『그림자: 우리 마음속의 어두운 반려자』, 분석심리학의 탐구 1 (서울: 한길사, 1999) 참조.

44 Wolz, *E-Motion Picture Magic*, 165-70.

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만드는 영화와 일반 영화업자들이 성경이야기나 기독교 메시지를 담아 제작한 영화로 나뉜다. 브루스 바빙턴(Bruce Babington)과 피터 W. 에반스(Peter W. Evans)는 기독교 영화를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눈다. 그것은 구약성경에 근거한 서사영화,[45] 로마-기독교적 서사영화,[46] 그리고 그리스도를 묘사한 영화이다.[47] 인터넷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에 따르면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들은 1012년 이래 2011년 예정작까지 총 240편이다.[48]

예수 영화의 역사는 길다. 뤼미에르 형제(Auguste and Louis Lumière)가 처음 '활동사진'(Cinémato graphe)을 공개한 지 5년 만에 이미 여섯 편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다룬 영화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100편이 훨씬 넘게 예수의 생애를 다룬 영화들이 만들어졌다.[49] 윌리엄 R. 텔포드(William R. Telford)에 따르면, 영화에서 예수를 묘사하는 방식은 세 가지이다. 그것들은 상징적으로, 게스트로, 주인공으로서의 출현이다. 상징적 출현은 주로 예수의 신비성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로, 예수의 신체 중의 일부, 즉 한 손, 양손, 발이나 몸통을 보인다. 기독교영화에서는 주로 로마-기독교적 영화에서 이와 같은 묘사를 찾아 볼 수 있다. 예수를 게스트, 손님으로서 묘사하는 경우에는 주로 환상의 형태로 묘사하는데, "문명"(Civilization, 1916), "폼페이 최후의 날", "인톨러런스"(Intolerance, 1916) 등과 같은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수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

---

45 여기에 속하는 영화로는 "십계"(The Ten Commandments, 1923/ 1956), "삼손과 데릴라"(Samson and Deliah, 1949), "다윗과 밧세바"(David and Bathsheba, 1951), "탕자"(The Prodigal, 1955), "에스더와 왕"(Esther and the King, 1960), "룻 이야기"(The Story of Ruth, 1960), "소돔과 고모라"(Sodom and Gomorrah, 1962), "성서"(The Bible, 1966) 등이 있다.

46 여기에는 "벤허"(Ben-Hur, 1925/ 1959), "십자가의 표징"(The Sign of the Cross, 1932), "폼페이 최후의 날"(Gli Ultimi Giorni Di Pompei[The Last Days of Pompeii], 1935), "쿠오바디스"(Quo Vadis?, 1951), "성의"(The Robe, 1953), "살로메"(Salome, 1953), "드미트리우스와 검투사들"(Demitrius and the Gladiators, 1954), "성배"(The Silver Chalice, 1954), "위대한 어부"(The Big Fisherman, 1959), "바라바"(Barabas, 1962) 등이 속한다.

47 Bruce Babington and Peter W. Evans, *Biblical Epics: Sacred Narrative in the Hollywood Cinema* (Manchester;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3); Marsh and Ortiz, *Explorations in Theology and Film*, 218.

48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hristian_films#1910.

49 서보명, "영화 속의 예수", 「기독교사상」 517 (2002・1): 234.

는 예수의 삶과 메시지를 묘사하는 영화이다.[50] 이 중에서 이 글의 관심은 예수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비평가들의 논의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핀다. 관련 문헌을 종합한 대표적 예수 영화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51]

"The Life and Passion of Jesus Christ"(1905, 이하 Life), "From the Manger to the Cross"(1912, 이하 Manger로 표기), "Intolerance"(1916), "The King of Kings"(1927, 이하 The King), "Golgotha"(1935), "Jesus of Nazareth" (1945), "King of Kings"(1961, 이하 King), "Il Vangelo Secondo Matteo"(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1964, 이하 Matteo), "The Greatest Story Ever Told"(1965, 이하 Story), "Jesus Christ Superstar"(1973, 이하 Superstar), "Godspell"(1973), "Il Messia"(The Messiah, 1975), "Jesus of Nazareth"(1977, 이하 Nazareth), "The Jesus Film"(1979, 이하 Film), "Monty Python's Life of Brian"(1979, 이하 Monty), "Jesus"(1979), "The Last Temptation of Christ"(1988, 이하 Temptation), "Jesus of Montreal"(1989, 이하 Montreal), "Giardini dell' Eden" (Garden of Eden, 1998), "Jesus"(1999), "The Miracle Maker: The Story of Jesus"(1999, 이하 Miracle), "The Gospel of John"(2003, 이하 John), "The Passion of the Christ"(2004, 이하 Passion), "Color of the Cross"(2006), "The Nativity Story"(2006) 등이다.

예수 영화는 대체로 복음서에 기초한다. 예를 들어, Matteo의 경우, 복음서에 기초해서 다규멘터리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King의 경우에는 복음서의 의도와는 달리 폭력이란 주제가 중시되며 그런 가운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등장인물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52]

예수 영화에 대한 기대와 매력은 장엄함(spectacle)일 것이다. 그러나

---

50 William R. Telford, "Jesus Christ Movie Star: The Depiction of Jesus in the Cinema," Marsh and Ortiz, *Explorations in Theology and Film*, 241-42.

51 Babington and Evans, *Biblical Epics*; Telford, "Jesus Christ Movie Star"; Stern, Richard C., Clayton N. Jefford, and Guerric DeBona, O.S.B. *Savior on the Silver Screen* (NY: Paulist Press, 1999); Jeffrey L. Staley and Richard Walsh, *Jesus, the Gospels, and Cinematic Imagination: A Handbook to Jesus on DVD*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7); "영화 속 예수의 모습 40", *Screen* (2008・1).

52 Staley and Walsh, *Jesus, the Gospels, and Cinematic Imagination*, 172-73.

1960년대 이후 제작비 까닭에 그 같은 예수 영화들을 대하기 어려워졌다.[53] 그래서 나타난 변화는 저예산을 통한 다양한 성격의 예수영화 제작이었다. Superstar와 "Godspell"은 음악을 통해, Nazareth과 "Jesus"는 TV용 영화로, Film과 John은 독립영화로, Monty는 제한된 관객을 위해, Montreal은 수난극으로 예수 영화를 만들었다. Passion은 장엄한 예수 영화의 흥행에 성공하였는데, 그것은 감독인 멜 깁슨(Mel C. G. Gibson)의 명성과 함께 9·11 이후의 분노와 피 흘리는 승리자 예수를 절묘하게 결합시킨 때문일 것이다. 예수 영화라고 해도 예수가 중심을 차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The King의 경우,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 유다, 그리고 가야바와의 관계성에서 다루어진다.

예수 영화는 먼저 흑백영화와 컬러영화로 나눌 수 있다. 위의 목록에서 "Golgotha"까지의 작품은 흑백영화이며, The King까지의 작품은 무성영화이다. 무성영화는 대사가 나오지 않아 낯설고 시대에 뒤진 영화라는 선입견을 줄 수 있다. 대사가 외국어자막으로 뜨기 때문에 해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색채영화에 비하여 흑백영화는 정신적 무게감을 주기 때문에 종교적 주제를 다룬 영화에는 어울릴 수도 있다. 흑과 백이라는 대조적인 색은 신념을 지닌 종교적 메시지를 전하는 데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Golgotha"의 화면은 마치 빛의 화가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의 그림을 보듯 밝음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 주제를 드러낸다.

예수 영화의 성격은 대단히 다양하다. 예수가 등장하는 영화들에는 "온갖 변주와 해괴망측한 설정과 신성모독 요소까지 스며"들어 있다.[54] 예수 영화에서 묘사되는 예수 상에 대해 살펴보자. 피터 말론(Peter Malone)에 따르면 예수 영화에서 예수는 고난받는 구속자, 해방을 가져오는 구원자 등으로 나타나며,[55] 텔포드는 일곱 가지로 말한다. 그것들은 가부장

---

53 Stern, Jefford, and DeBona, *Savior on the Silver Screen*, 또는 Richard Walsh, *Reading the Gospels in the Dark: Portrayals of Jesus in Film* (Harrisburg,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3), 1-19.

54 "영화 속 예수의 모습 40", *Screen* (2008·1).

적 그리스도(Manger, The King, The Man Nobody Knows[1990]), 청년 그리스도(King), 평화주의자 그리스도(Nazareth), 혁명적인그리스도(Matteo, “Cool Hand Luke”, Montreal, Son of Man [2006]), 신비적 그리스도(Story), 뮤지컬 그리스도(Superstar, “Godspell”), 그리고 인간적 그리스도(Temptation)이다.[56]

성경은 예수의 모습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다. 기껏해야 이사야 53장 2절하반절에서 예수의 용모는 볼품없는 자로 묘사된다.[57] 그래서일까. 예수를 묘사하는 영화들은 다양한 형상의 예수의 모습들을 보여준다. 예수에 대한 대표적 묘사는 긴 금발머리에 턱수염을 기르고 푸른 눈에 흰 성의를 입은 아리안 족의 형상이다. 그러나 유대인 예수는 셈족으로서 머리털과 눈동자가 검은색이고 중키의 특징을 지닌 것으로 묘사되어야 하지만 그런 예수는 찾아볼 수 없다.[58]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 영화는 복음서의 영화적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어서 감독의 창작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그 창의적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다른 예수 영화로부터 왔다.[59] 그런 까닭에 예수 영화에 대한 평가는 그것이 복음서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전달하고 있느냐에서만 판단할 수 없고 오히려 예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복음서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3.2. 예수 영화 읽기

예수 영화를 보고 읽는 방식은 기존의 영화 보기와 읽기 방식을 기초로 하되 그것만으로 그칠 수 없는 나름의 방식이 동원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화를 보고 읽는 방식의 전문성이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1970년경

---

55 Peter Malone, *Movie Christs and Antichrists* (NY: Crossroad, 1990).

56 Telford, “Jesus Christ Movie Star,” 246-55.

57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2절하).

58 Telford, “Jesus Christ Movie Star,” 242-45.

59 특히 깁슨의 경우. Staley and Walsh, *Jesus, the Gospels, and Cinematic Imagination*, 173.

부터이다. 비교적 연륜이 얕은 영화 비평은 처음에 영화이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영화 이론은 영화 비평과는 다르다. 영화이론은 영화가 무엇이냐는 명제, 즉 영화의 이상에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해 규범적이거나 진술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실주의 이론(Theories of realism)은 "영화 예술의 다큐멘터리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영화는 일차적으로 얼마나 외적 현실 세계를 정확히 반영했는가에 따라 평가된다."[60] 반면에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재현하는 영화는 예술일 수 없다고 보면서, 영화의 장면들로 나타나도록 하는 스크린의 평면성, 연기, 조명, 앵글, 편집 등에 의한 비현실적 표현이야말로 영화를 예술로 만든다고 보았다(형식주의 영화 이론, Formalist film theories).[61]

영화 이론과 달리 영화 비평은 영화가 내포한 내용들을 드러내어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영화 이론의 대상이 전문가라고 하면 영화 비평은 영화를 보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62] 그러나 영화 이론과 영화 비평의 이와 같은 구분은 무의미하다. 영화 비평은 사실 영화 이론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영화에 대한 어떤 이론 없이 비평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브라운(David Brown)에 따르면, 영화 해석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영화분석의 원리에는 '리비스학파'(Leavisite), 기호학(Semiotics), 마르크스주의, 정신분석학, 사회학과 인종학, 그리고 재해석 등이 있다.[63] 로버트 K. 존스톤(Robert K. Johnston)은 좀 더 실제적이고 기본적인 영화비평에 대해 말한다. 그것들은 장르비평(genre criticism), 작가비평(auteur criticism), 주제비평(thematic criticism), 그리고 문화비평(cultural criticism)이다. 장르비평은 영화의 공통된 형식과 신화화의 양상을 검토한

---

60 Louis Giannetti, *Understanding Movies*, 김진해 역, 『영화의 이해: 이론과 실제』 (서울: 현암사, 1987), 447.

61 Rudolf Arnheim, *Film als Kunst*, 김방옥 역, 『예술로서의 영화』, 홍성신서 67 (서울: 홍성사, 1983).

62 Monaco, *How to Read a Film*, 306-307.

63 이에 대해서는 David Brown, "필름, 영화(movies), 의미들," Marsh and Ortiz, *Explorations in Theology and Film*, 46-51 참조.

다. 작가비평은 작가에 주목한다. 주제비평은 영화의 텍스트를 비교한다. 문화비평은 영화의 사회적 정황에 초점을 맞춘다.[64] 이와 같은 영화비평들은 교육을 고려할 때, 그 전문성과 적합성 면에서 필요 이상의 내용이다. 다수의 비평 방식은 이 글의 관심인 예수 영화의 차원에서 볼 때 제한된다. 예컨대, 예수 영화는 이미 고유한 장르이며 그 서사구조 역시 대부분 유사하기 때문이다. 물론 예수 영화에 대한 다양한 비평적 접근이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예수 영화가 갖고 있는 이 같은 조건에서 일반적 비평 방식은 그 실효성이 의심되면서 새로운 비평의 틀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대해 다음 장에서 이어서 생각해보도록 하자.

4. 예수 영화와 교육

4.1. 예수 영화를 위한 교육 구조

예수 영화를 교육을 위해 이용하고자 할 때 어떤 접근이 타당하고 효과적인가. 즉 예수 영화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접근의 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글에서는 예수 영화 보기와 읽기의 틀을 구원, 학습자, 교육현장이라는 요소들을 구조적 차원에서 구상한다. 즉 구원이라는 교육의 내용을 교회교육의 현장에서 학습자의 발달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예수 영화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 영화에 대한 교육적 접근은 무엇보다 먼저 예수의 정체적 성격인 구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수 영화와 구원이 만나는 곳에 교육 내용으로서의 예수의 정체성인 메시야로서의 예수가 있으며, 그 예수는 왕이며, 대제사장이고 예언자인 삼중직으로서의 메시야이다. 정통주의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그리스도는 세 직무를 가지고 있다: ① *officium propheticum*(예언자의 직무, 하느님의 구원의 뜻을 계시하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직무), ② *officium sacerdotale*(제사장의 직

64 Johnston, *Reel Spirituality*, 195-239.

무, 이것은 두 가지, 곧 *satisfactio*[배상, 십자가에서 치fms 대리적 속죄희생]과 *intercessio*[중재]이다), ③ *officium regium*(왕의 직무, 곧 세상, 교회, 그리고 하늘에서의 통치).[65]

예언자적 직무는 가르치고 설교하시는 예수로서 산상보훈에 잘 나타난다(특히 마 5:22, 28, 32, 34, 39, 44). 제사장적 직무는 믿는 자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수난받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치는 십자가 처형에서(히 9: 26, 28), 그리고 왕적 직무는 예수의 왕권에 대한 증거로서의 승천에서(계 11:15) 잘 나타난다.[66] 예수 영화에서 예수의 삼중직무 중에 예언자적 직무와 제사장적 직무는 잘 나타나나 왕적 직무에 대한 묘사는 드물다. 왕적 직무로서의 승천을 다룬 예수 영화는 그보다 적다(The King, Miracle, Superstar, Story, Film, "Jesus", Life 등). 따라서 예수 영화에 대한 교육적 접근은 예수 영화들이 신학적으로 상식적인 이 구원의 주인 메시야를 정당하게 표현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교회교육의 현장은 대체로 예배, 성경공부,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자는 유치부에서 초등부, 청소년부의 발달 단계로 나뉘어 있다. 예수 영화는 이 구원, 학습자, 교회교육의 현장이 만나는 곳에서 읽혀져야 한다.

4.2. 예배에서의 예수 영화

예배에서의 영화사용은 일단 설교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설교에서 영화사용은 전체적으로 설교가 영화에 끌려가서는 안 되고 설교의 필요에 따라 영화를 활용하는 식이 되어야 한다. 그 양에 있어서도 설교의 주제에 맞추어 절제하도록 애쓰는 가운데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설교에서 영화의 사용은 예배자의 집중도를 높이며, 전인 형성의 가능성이 있어서[67] 권장할 만하나 영화 자료의 선택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오

---

65 Quenstedt, II, 212 이하, 225 이하, 264 이하, Horst G. Pöhlmann, *Abriss der Dogmatik*, 이신건 역, 『교의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261 재인용.

66 Charles W. Carter, *A Contemporary Wesleyan Theology*, 김영선 외 역, 『현대웨슬리신학』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77-78.

히려 예배를 방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영화를 사용하느냐이다. 특히 설교에서 사용되는 영화는 예배자의 심성에 공감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68] 예수 영화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하고 제한된 경우 예수 영화 자체가 영화의 공감과 말씀의 변화가 만나는 곳이 될 수 있다.

예수 영화를 인간발달을 고려하여 사용할 경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동초기의 경우, 어린이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학습자가 예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예수 영화는 예수의 탄생을 축제적 분위기에서 전하고 있다. 천사의 노래와 목자의 방문과 동방박사의 선물은 사랑받는 예수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며 아동초기 학습자에게 사랑받는 아기 예수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임을 알려줄 것이다. 천국에서 큰 자로서의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의 사랑은 대부분의 예수 영화에서 등장한다. 일부영화에서는 나사렛에서의 예수의 어린 시절을 다룬다(Passion, Manger, King, Temptation, Story, Nazareth). The King의 경우, 예수는 어린 장님과 절름발이를 치유함으로써 구원자의 모습을 보인다.

대부분의 예수 영화는 예수의 청소년기를 미래의 전조로 그린다. 예를 들어, 목공소의 예수에게 십자가 형태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장면 같은 경우이다(Manger). 혼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양치는 목자들을 내려다보는 장면이나(Nazareth) 외경(*Infancy Gospel of Thomas*)을 따라 새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줌으로써("Jesus") 생명을 주는 예수를 묘사한다.

4.3. 성경공부에서의 예수 영화

성경공부를 위해 예수 영화를 이용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복음서를 공부할 때 해당 복음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예수 영화를 이용하는 것이다. 월쉬는 예수 영화를 복음서와 짝을 지어 해석한다.

---

67 "… 진정한 예배의 부흥은 오감뿐만 아니라 영과 생각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인적 예배를 통해 가능하다." "포스트모던 시대는 전인적 예배를 원한다", 「목회와 신학」 207 (2006・9): 105.

68 김순환, "예배 안에서 영화사용의 의미와 한계", 「신학과 실천」 15 (2008 여름): 67-68.

Montreal은 마가복음과, “Godspell”은 예수의 가르침과, Matteo는 마태복음과, King은 누가복음과 Story는 요한복음과 짝을 짓는다.[69] 교회에서 복음서를 공부할 때 그에 해당되는 영화를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를 보여주는 사건과 연관 지어서, 관련된 예수 영화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구원자로서의 예수 영화 내용에는 기적, 십자가 처형, 그리고 부활 등이 포함될 것이다. 기적은 예수가 자연 질서를 다스리는 왕임을 나타낸다. 예수 영화에서 기적은 기적 자체보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Manger), 기적에 대한 언급을 삼가거나(King), 심리적인 것으로 처리하거나, 기적의 은혜를 받은 자의 믿음으로 여기거나(Story), 기적을 피하거나(“Godspell”),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것으로 잘못 해석하거나(Monty), 고대의 마술적 행위로 보는 등(Montreal) 부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Life, Matteo, Nazareth, 그리고 Film에서 극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Jesus”와 Miracle에서는 가장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진다. “Jesus”에서는 기적이 신앙의 이유이고, Miracle에서는 기적이 예수의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는 관점을 제공한다.[70] 예수 영화의 기적 장면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영화에는 “The Magician”(1958)과 “Leap of Faith”(1992) 등이 있다.

십자가 처형은 초기 예수 영화에서는 볼거리로 제공되었다. 그 후 십자가 처형에 대한 입장은 냉철하거나(King) 격하거나(Nazareth, Film, Passion) 하는 극단적인 입장으로 나뉘었다. 공포를 통해 그 중간 입장을 택하기도 했으나(Montreal), 십자가를 우연한 죽음으로 처리하거나(Montreal) 춤과 노래로 표현하기까지 하였다(Monty).[71] 예수 영화의 희생적 죽음인 십자가 장면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영화에는 “Cool-Hand Luke”(1967), “One Flew over the Cuckoo’s Nest”(1975), “End of Days”(1999), “Spitfire Grill”(1996) 등이 있다.

---

69 Walsh, *Reading the Gospels in the Dark*. 그리고 W. Barnes Tatum, *Jesus at the Movies: A Guide to the First Hundred Years*, revised and expanded (Santa Rosa: Polebridge, 2004) 참조.

70 Staley and Walsh, *Jesus, the Gospels, and Cinematic Imagination*, 163-64.

71 Staley and Walsh, *Jesus, the Gospels, and Cinematic Imagination*, 165.

예수 영화에서 부활은 비둘기를 이용하는 식의 상징적으로(Life, The King), 열린 무덤처럼 사실적으로(Matteo), 승천과(Life, The King, Film, “Jesus”) 교회에까지(Story) 포함시킨다. 대조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십자가의 그림자나(King) 빈 무덤에 놓인 옷 정도로 처리하거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부각시키거나(Nazareth), 제자들의 가르침으로 대체한다(Montreal).[72] 예수 영화의 영웅적 승리를 나타내는 부활 장면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영화에는 “셰인”(Shane[1953]), “스타워즈”(Star Wars[1977]), “쇼생크 탈출”(Shawshank Redemption[1994]) 등이 있다.

구주이심을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으로는 세례 요한의 예비,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천사의 수태고지, 예수의 탄생, 목자와 동방박사의 방문 등이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사건들은 대부분의 예수 영화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73] 아동기 학습자의 주의를 끌 수 있을 것이다.

성경공부에서 영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방식은 교수-학습진행에서 심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수-학습진행의 두 번째 단계인 전개 단계의 첫 부분에서 학습자들에게 상상력을 살려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것을 권한다.[74] 이 경우 성경 세계에 대한 접촉이 거의 없는 학습자들의 경우 상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럴 때 성경공부 내용과 연관된 예수 영화의 사용은 성경의 내용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4.4. 프로그램에서의 예수 영화 사용

4.4.1. 예수 영화 꼼꼼히 읽기

영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에는 영화보기가 있을 것이다. 영화를 관람하고 읽는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발달에 맞을

---

72 Staley and Walsh, *Jesus, the Gospels, and Cinematic Imagination*, 165.

73 이에 대해서는 Staley and Walsh, *Jesus, the Gospels, and Cinematic Imagination*, 175-76 참고.

74 Walter Wink, *Transforming Bible Study: A Leader's Guide*, 이금만 역,『영성 발달을 위한 창의적 성서교육 방법: 인도자용 지침서』(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0), 35-40.

것이다. 예수 영화 읽기의 원리의 일부를 파멜라 M. 렉(Pamela M. Legg)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그녀는 영화와의 대화를 통한 종교적 탐구의 방법을 네 가지로 제안한다.[75] 첫째, 감독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학습자가 대면한 영화의 어떠함은 감독의 배경과 의도에 크게 의존된다. 감독의 성장 배경과 종교적 배경, 사상 등을 알 때 영화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폴라(Francis F. Coppola)의 가톨릭 배경이 그의 영화 대부 3부작(Godfather trilogy)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예수 영화의 경우, 학습자들이 감독의 성격에 대해 미리 연구하기에는 여러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사가 미리 준비해서 학습자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이 좋을 듯하다. 둘째, 종교적 영화의 사용이다. 종교적 영화에는 성경의 내용을 다룬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주제나 신앙인물을 다룬 영화 등이 속한다. 영화에서 성경의 내용이나 주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살피는 접근이다. 예수 영화의 경우, 예수의 성품인 신성, 인성, 그리고 직능인 예언자, 제사장, 왕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 살펴볼 수 있다. 셋째, 종교적 내용과 관련된 영화의 이미지와 이해이다. 즉 영화가 종교적일 수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를 살피는 접근이다. 예를 들어, 영화 "사랑과 영혼"(Ghost, 1990)에서 사랑과 사후세계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식이다. 예수 영화에서 전체적으로 영화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지 살펴볼 수 있다. 넷째, 기존의 종교적 개념을 전복시키며 도전하고 비판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위의 접근이 종교적 개념에 대한 의견 제안이라면, 이 접근은 그 같은 종교적 개념을 뒤집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포레스트 검프"(Forrest Gump, 1994)에서는 운(destiny)에 대한 상이한 관점들이 공존하며 서로 전복시킨다. 예수 영화에서는 영화가 전달하려고 하는 가치관이 세속적 일반의 것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볼 수 있다.

예수 영화 보기와 읽기는 예수 영화로부터 예수를 현대적으로 변용하는 등의 예수 유사영화, 그리고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들을 등장시켜 예

---

75 Legg, "Contemporary Films and Religious Exploration," 126-31.

수 정신에 대해 말하는 예수 상징 영화의 순으로 그 폭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4.4.2. 영화 찍기

영화교육의 단계를 구태어 나누어 본다면 영화가 소개되고 전달되어 학습자가 그 내용을 알게 되는 영화를 보는 단계-영화를 해석하여 의미를 깨닫게 되는 단계 또는 이해하게 되는 단계인 영화를 읽는 단계-영화 만들기의 단계가 될 것이다. 영화 만들기는 영화 제작의 기술을 익히는 이상으로 영화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특히 구원의 관점에서 예수 영화를 다루는 교육적 상황에서는 예수에 대한 신앙고백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고백이라고 해서 회심 등의 내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내용 등도 포함시킬 수 있다. 영화 만들기 활동은 어찌 보면 영화 교육의 마지막 단계이면서 예수 영화 보기와 읽기의 정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예수 영화가 예수에 대한 학습자의 고백과 정리에 이르지 못한다면 반쪽의 교육이 될 것이다.

영화 찍기는 쉽지 않으나 기본적인 기술을 익히면 그다지 어렵지도 않다. 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스토리보드(storyboard)를 만들어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스토리보드는 영화 등의 줄거리를 보여주는 일련의 그림이다. 촬영은 대상과의 거리에 따라 느낌이 다른데 클로즈업으로부터 풀샷까지, 그리고 앵글을 위와 아래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대상의 권위적 비중이 달라진다. 이야기는 일반적인 기승전결을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 영화를 찍은 뒤에는 시사회를 열어 예수에 대한 고백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겠다.[76]

---

76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 이른는 교육적 영화 찍기에 대해서는 송예영 5인 공저, 『영화교육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사)한국영화학회 영화교육위원회 편, 『초등학교 영화』 (서울: 월인, 2005); (사)한국영화학회 영화교육위원회 편, 『중학교 영화』 (서울: 월인, 2005); 영화진흥위원회 교재편찬위원회, 『영화 읽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참조.

5. 나가는 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의지로 획득하는 것인가. 신학은 그 사이에서 방황하지만 교육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결국 인간 학습자에게 작용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렇다면 '어떻게'가 문제가 될 터인데, 그 어떻게는 자연스레 매개를 요청하게 되며 여기에서는 그것들 중의 하나를 영화로 보았다.

영화는 교육이 목표로 하는 전인성을 그대로 담지하고 있는 매체로서 교육에 활용하기는 그지없이 좋다. 더욱이 구원과 관련된 교육에서 예수 영화는 그것을 어떤 측면에서 다루느냐에 따라 기독교 교육에서의 활용도는 높다. 기독교 교육의 일반 교육적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예배에서 설교에 사용될 수 있고, 성경공부에서는 성경 말씀을 육화하여 성경의 세계를 오늘날로 이전시킨다. 예수 영화를 보고 읽는 프로그램들은 구원의 주로서의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예수 영화를 통한 학습은 예수의 모습을 학습자의 가슴에 생생하게 심어줄 수 있어서 삶 속에서 그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억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영화 만들기는 하나의 예수에 대한 신앙고백이며 삶의 스타일에 대한 결의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언급된 예수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은 가벼운 수필 수준에서 영화교육에 접근하는 교회교육의 현장에 구체적 도움이 될 것이다. 기독교 교육에서 영화를 매개로 하는 교육은 그 깊이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예수 영화를 넘어 예수 유사영화와 기독교 관련 영화로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학습자의 전인적 구원은 관객의 전인적 변화에 도전하는 영화를 통해 하나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Cunneen, Joseph. “Dorothy Day’s Amazing Life a Middling Movie.” *National CatholicReporter* 32/41 (Sept. 27, 1996): 20.

Giannetti, Louis. *Understanding Movies*.『영화의 이해: 이론과 실제』. 김진해 역. 현암사, 1987.

_____. 제10판. 박만준 · 진기행 공역. k-books, 2008.

Goldburg, Peta. “Towards a Creative Arts Approach to the Teaching of Religious Educ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Use of Film.” *British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6/2 (2004): 175-84.

Hurley, Neil P. *Theology through Film*. New York: Harper & Row, 1970.

Johnston, Robert K. *Reel Spirituality: Theology and Film in Dialogue*. 전의우 역.『영화와 영성』. 서울: IVP, 2003.

Lefevere, Patricia. “Communicating Jesus’ Message with iPods and Videos.” *National Catholic Reporter* 43/23 (April 6, 2007): 13.

Legg, Pamela M. “Contemporary Films and Religious Exploration: An Opportunity for Religious Education, Part I: Foundational Questions.” *Religious Education* 91/3 (1996): 396-406.

_____. “Contemporary Films and Religious Exploration: An Opportunity for Religious Education, Part II: How to Engage in Conversation with Film.” *Religious Education* 92/1 (1997): 120-32.

Marsh, Clive and Gaye Ortiz. (Ed.) *Explorations in Theology and Film: Movies and Meaning*. 김도훈 역.『영화관에서 만나는 기독교 영성: 영화와 신학의 진지한 대화를 향하여』. 파주: 살림, 2007.

Monaco, James. *How to Read a Film*. 양윤모 역.『영화, 어떻게 읽을 것인

가』. 혜서원, 1993.

김순환. “예배 안에서 영화사용의 의미와 한계”. 「신학과 실천」 15 (2008 여름): 39-71.

백선기. 『영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서보명. “영화 속의 예수”. 「기독교사상」 517(2002 · 1): 233-39.

송예영 5인 공저. 『영화교육의 다양한 교수 · 학습 방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영화진흥위원회 교재편찬위원회. 『영화 읽기』.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한국영화학회 영화교육위원회 편. 『중학교 영화』. 월인, 2005.

한국영화학회 영화교육위원회 편. 『초등학교 영화』. 월인, 2005.

Abstract

Jesus Film as a Motif for Salvation

Park, Jong-Seok

In this article, Christian education as a leader into the salvation and educational usage of the film as a means for leading into salvation are discussed. The characters of salvation process in Christian education are holistic and life long things. Seeing salvation like this in the development of leaners, effective usage of Jesus film performs an important role leading into the salvation. To do this goal, the contents of Jesus film, teaching field of the church, specific contents and methods of the Jesus film usage in the development structure of leaner as an audience are proposed through this article. The contents like these challenge to reflect on the education by way of the application films in view of validity in these days.

Key-Words : Salvation, Wholeness, Jesus film, The structure of education